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7월 2일 (제90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죄라고?

교단 내에 몸이 안 좋은 목사들이 몇몇 있다. 아픈 그들을 두고 더러 ‘죄 때문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그들을 찾아가 말했다. “너희가 너희 몸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너희의 죄로 인해 아픈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누가 아프거나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집에 심방 가서 ‘회개할 것이 많은가 봐요. 회개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이요,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그것이야말로 심령을 상하게 하는 죄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제자들이 “누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요9:3)고 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니 소경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 아니겠는가.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제물로 삼았을 때 회생된 자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눅13:2)고 물으셨고, 또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눅13:4)라고도 물으신 후, 스스로 ‘아니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서로 정죄하지 말라. 더욱이 힘들고 아픈 자에게 소금 뿌리는 일은 하지 말라. 그들은 가만 놔둬도 너무 힘들다.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줘야 한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라

사실 우리는 대부분 정답을 알고 있다. 아니 정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그 이전에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는 정답에 대해 믿음이 확실하다면 왜 실천하지 못하겠는가. 결국 믿음이 없어 행동하지 못하고 어둠과 고통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답과 정답이 다를 때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답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내가 소원하는 바가 너무 크기에, 아니면 내 눈과 귀를 가로막는 인간적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척하지만, 돌아가서는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답을 손에 쥐고도 망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라 할 것이다. ‘도적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하지만 개가 안 짖는 게 아니라 짖어대는데도 들리지 않는 게 맞다. 왜 안 들리는 것일까? 내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번 벨라루스(Belarus) 집회는 지난 해

있는 이유를 단적으로 진단하셨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뜨겁게 기도하던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제 아무리 미석으로 지었다 해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라 할 수 없다. 그냥 건물일 뿐이다. 그저 관광유물로 이름뿐인 유럽교회들처럼 말이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다.

결국 원칙이다. 기본이다.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유는 기본에서, 원칙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건물일 뿐이다. (소름끼치는 축사를 리모델링한 슬라바 목사의 New Life Church)

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상담하러 오는 성도들이 있다. 나는 그 상담을 위해 몇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나간다. 그리고 사정을 들은 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열심히 권면하고 간절히 기도해준다. 그러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는 ‘알았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돌아가서는 딴 길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렇게 할 거면 왜 상담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제 갈 길로 가서 잘 되나면 그것도 아니다. 잘 될 턱이 있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한 말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하는데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성도들은 기대를 갖고 목사님을 찾아오는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니 앞에서는

필리핀(Philippines) 집회 이후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진 해외집회였다. 그런데 집회 첫날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그 현장을 촬영하는 그 순간, 스스로 아주 절실하게 살아있다는 짜릿함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 이거야!’ 하고 정답을 찾은 느낌 이랄까. 목사님께서 해외집회 편집 영상을 시사하시며, “그래, 내가 할 일은 이거야!”라고 거듭 무릎을 치시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수긍하면 서도 사실 가슴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충만한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머리로는 이해했던 답을 온 마음으로 찾은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주일 4부 예배를 통해 잘 나가던 대형교회들이 요즘 몸살을 앓고

‘진리는 단순하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던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을 손에 쥐고도 그 답대로 행동하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 게으름과 나태함이 문제를 낳는 것이다. 벨라루스 집회 영상 말미에 보면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대목이 나온다. 정답이다. 진리다. 기본이고 원칙이다.

지금 어려움이 왔는가? 고통 중에 있는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가?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뒤늦어진 우리의 영적 삶을 리셋(reset) 하는 정답의 길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

청년대학부 : 7월 24(월)~26일(수), 중고등부 : 7월 27(목)~29일(토)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4:3~15)



분내는 것은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이다

‘오 모래여, 오 모래여, 내 사랑 모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희생의 사랑에 할 말을 잊었다오/ 이것이 파도의 고백이라오/ 당신은 모래, 나는 파도/ 당신은 배요, 나는 노라오/ 우리는 예수가 맺어주신 영원한 천생연분이라오/ 오 사랑, 오 사랑, 우리는 사랑뿐이라오/ 지치고 상한 맘 안식이 있다면 오직 당신의 품이라오/ 영원히 당신만을, 당신만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것은 ‘모래와 파도’라는 저의 자작시입니다. 훗날 ‘모래’ 대신 ‘예수’를 넣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오 예수여’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목회 초기,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였습니다. 마음도 식힐 겸 혼자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상념에 잠겨 있는데,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위에 부딪치니 파도가 자지러지게 소리를 내고 아파하며 물러가고 받아친 바위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눈을 돌려 모래사장을 보니 같은 세찬 파도가 물러와도 모래는 그것을 다 안아 잠재우고 물방울을 만들며 방글방글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세찬 파도에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안는 통 큰 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것을 글로 옮겼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보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

여러분, 세상이 가끔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분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찬 파도가 다가와 한 방 때리듯 말입니다. 그 때 여러분은 바위처럼 받아칠 것이 아니라 모래처럼 그것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내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살인하게 된 원인이 바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창4:5~8).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열납하지 않자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동생 아벨은 일찍 세상을 떠난 억울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여 살인한 가인은 어찌 되었습니까? 간신히 생명표를 얻어 목숨은 건졌으나 평생 되는 꼴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창4:11~12).

성경은 분노하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찌라 칼이 다시 꽃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렘21:4~5). 분노하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은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것과 같고, 공든 탑을 무너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리바에 이르러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는 늘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여 그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셨습니다. 물론 반석에서 물은 솟았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도 갈망하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민20:24). 고생고생하며 가나안에 거의 다다랐는데, 분낸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다보는 것으로 족해야 했습니다.

요즘 감정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고층건물 외벽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줄인 밧줄을 잘라 죽

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틀어놓은 노랫소리가 시끄럽다고 분노하여 순간 저지른 일입니다. 분노는 이렇듯 잔인한 것입니다.

자제력 부재현상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분을 내면 이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잠25:28). 화끈에 사표 내던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끈에 불질러놓고 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화끈에 이혼도 장 쪼고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오죽하면 분이 창수와 같다고 하셨을까요(잠27:4). 홍수가

나면 그간 애써 가꿔놓은 집이 되고, 가축이 되고, 사람이 되고, 사

람까지 다 쓸어가듯, 분노로 인해 순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다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와 함께 다가와 입을 맞추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어 ‘말고’라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 떨어뜨리자 예수님이 그의 귀를 다시 만져 낫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눅22:51).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맞받아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그래서 결국 승리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른 뺨을 치거든 옥 하지 말고 왼 뺨까지 내주세요. 겉옷을 달라하거든 ‘미친 놈’ 하며 먹살 잡지 말고 속옷까지 내주세요.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미쳤냐?’ 하지 말고 간 김에 십 리까지 가주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까지 참으세요.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콜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생수 같은 자가 되라

성격이 콜라 같은 분들, 조그마한 일에도 화부터 내는 분들, 정신과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 성격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온유’요,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갈5:22~23).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행9:1).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옛 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매한 핍박과 환난과 모함에도 참고 이겨냈고, 더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한 그의 편지가 그의 변화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 혈기가 사라지고 온유한 자가 됩니다. 제 얼굴에서 사나움이 없어지고, 제 마음에 노가 사라집니다. 누가 저에게 욕을 해도 “안 보는 데서는 임금님도 욕하는데.” 하며 허허 웃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어렵도 없지요.

여러분,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은 하지 마시다. 분을 내는 자와는 동행도 하지 말고(잠22:24~25), 혹은 분을 내었더라도 해지기 전에 풀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합시다(엡4:26~27).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마5:5)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심비에 새겨 마음을 다스리는 현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거저씨만한 믿음 ::

역발상식 투자

월가 최고의 펀드매니저였던 템플턴은 “다른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매도할 때 매수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장밋빛 꿈을 꾸며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비할 바 없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대신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역발상식 투자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상식에 역행하는 투자결정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템플턴이 가장 경계한 것은 군중심리입니다. 패닉과 버블 모두 이 군중심리에서 비롯되며, 결국에는 모두 허망하게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는 군중심리에 역행해야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행을 좇는 사람들’이지만, 훌륭한 투자자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타인의 실수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역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과 반대여서 마음이 편치 않은 포지션을 고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이 내재가치와 심각하게 동떨어진 사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통념을 거스릴 수 있는 배짱도 충분해야 합니다. 이렇듯 단호하게 행동하려면 그 기반이 되어 줄 경험이 있어야 하지요. 시장이 이성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극단적인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가장 전형적인 시장의 희생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lmkwdf@hotmail.com

:: 신앙논객 ::

우리 신앙과 인생의 나침반

최근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해적에 관한 판타지 영화였는데, 이번이 전체 시리즈 중에 다섯 번째 편이더군요. 영화 속에서 특별히 제 이목을 끈 것은 해적선장이 가지고 있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 나침반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가장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생각하고 덮개를 열면, 나침반의 바늘이 그것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는 신기한 나침반이더군요. 나침반의 주인이 당장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어떤 물건이 꼭 필요해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그 물건이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물론 영화이고 판타지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가 보통 실생활에서 쓰는 정상적인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니까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저 해적선장이 가지고 있던 나침반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나침반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간절히 원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 그 때 그 때 상황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 정말 하나

우리는 고점일 때 만연한 낙관론에 회의적이고, 저점일 때 만연한 비관론에 회의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낙관주의자가 되어 매수하는 것이 역투자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할 행동인 셈이지요. 내재가치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매도할 때 역으로 살 수 있는 가치를 볼 줄 아는 견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견해가 옳기만 하다면,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좋은 주식 가운데 주가가 낮은 종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결코 싸게 사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해자(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가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템플턴도 ‘아무런 노력도 없이 맺어진 인간관계’로는 결코 좋은 성품의 사람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식도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잘 골라야 하듯, 사람도 영적인 해자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품위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 신앙논객 ::

일어나 잡아먹으라

사도행전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나온다. 백부장이라는 자리는 백 명의 병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자리이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욕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고 한다. 한편,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남긴다.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고, 베드로는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를 찾아간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구원을 받아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로마군인과 유대인이라는 벽을 허물었다. 나는 불교 집안의 아들이자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내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서로 벽을 허문다는 것은 서로의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며,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 사랑&행복 ::

인생의 지침서, 성경

물건을 사용할 때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무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도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받은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무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첫걸음이고, 영혼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과 마음이 합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세상의 위인들처럼 태생이 다르거나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비열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줍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아내를 내어준 아브라함, 장자권을 시샘하여 빼앗은 야곱, 자랑쟁이 요셉, 간음과 살인

을 일삼은 파렴치한 다윗 등, 인간사의 부끄러운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거듭날 수 있기에 이들을 보며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근세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뉴턴, 아인슈타인, 링컨, 에디슨, 록펠러, 루즈벨트의 공통점은 모두 성경 애독가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성경을 지침서 삼아 탐독하고, 가족 모두 성경을 필독하며 가문 대대로 가까이 두고 지냈습니다. 삶의 지침서를 그토록 애독했으니 그와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내세와 현세를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책이고, 삶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삶의 올바른 지침을 삼는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윤택하여 질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김고은

khjc77@hanmail.net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약속된 축복

20대 초반의 어느 힘든 날, 일기장에 10년 후 30대 초반이 된 제가 이루었으면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대에 제가 다니고 있었으면 하는 회사, 받았으면 하는 연봉, 독립해서 나만의 집을 갖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 등과 같은 것들이요. 당시 집안 형편은 막막하고 취업난은 한창 심해서 일기를 쓰면서도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일까, 그런 괴로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30대가 된 제가 옛날 일기장을 들춰보다가 그 10년 전에 적은 일기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일기장에 적었던 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10년 전의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10년 후의 제가 이루어냈더라고요. 하와이에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는 것 또한, 20대의 제가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였지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게 하나의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 네, 감사를 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감사를 잘하는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지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들, 마음속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괴로움과 분노, 불평들을 막을 순 없지요. 하지만 그 불평들을 입 밖으로 꺼내느냐 마느냐, 적어도 그것만큼은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엔 불평이 있지만 입으론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제가 품었던 목표를 바르고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 불평을 누르고 감사하려고 노력한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지요. 애굽에서 약속된 땅으로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착시간을 지체시키지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자주 끼어들면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것처럼, 불평은 약속된 축복으로 가는 길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결어서 열흘이면 갈 수 있던 가나안을 그 앞에서 돌고 돌아 40년이나 헤매었다는 사실은 문득문득 저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나안처럼 약속으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취업, 결혼, 출산, 사업, 장막등과 같은 것들을 지체시키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불평이 아닐까요. 혹시 나의 불평이 약속된 물질의 축복을 5년 뒤로 지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지, 혹시 나의 불만이 예정된 장막의 축복을 10년 뒤로 지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봐야겠습니다.

10년 전 일기장을 본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제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적었습니다. 그 목표들은 10년 전보다 더 과감하고, 이전의 저라면 바랄 수 없던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예정된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어느 여름날, 어린 소녀가 과일 가판대에 앉아서 밝은 얼굴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사러 왔던 한 노신사가 궁금해서 무슨 책을 그렇게 심취하여 읽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을 들은 무신론자인 노신사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누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니?” 소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노신사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부로 지껄이다니.” 잠시 침묵하던 소녀가 노신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그거야 당연히 있는 거니까... 세상을 밝게 해주고 또 따뜻하게도 해주잖아.” 소녀가 미소를 띤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도 당연히 계시며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태양처럼 성경말씀이 우리 마음

을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도 해주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식약동원 율무편

율무는 의이인(薏苡仁)이라는 약명이며, 맛이 달고, 담백하면서, 독성이 없는 약초로 알려져 있다. 비(脾)장, 폐(肺)장, 신(腎)장으로 가서 설사를 멈추고, 소화기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며, 근육의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배출하며, 사마귀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 효능이 완만하기 때문에 죽이나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가루로 사용하기도 하며, 떡, 엿, 과자 등의 원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 술을 빚는데도 이용된다.

특히 다이어트에도 율무차를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 주로 물살이 찐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뇨효과가 좋아서 체내의 수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몸에 물이 배출이 되지 않아 물살로 갈 때, 물살을 빼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기미, 주근깨, 여드름을 예방하기도 한다. 한번에 12~20g을 물 3컵으로 끓여 반으로 줄면 2~3회에 나누어 마신다. 단맛을 좋아하

는 경우에는 설탕보다는 꿀을 소량 타서 마시는 것도 좋다. 또한 설사가 잦은 경우에는 율무와 까치콩을 30g씩 달여 먹으면 도움이 된다. 설사를 할 때는 율무를 볶아서 쓰는 게 좋고, 다이어트용으로는 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율무가 특히 잘 맞는 경우는 몸이 조금 찬 태음인(太陰人)에게 효과적인데, 한성 태음인들 중에는 몸에 수분이 많아서 피부가 희멀겑고 살이 물경거리며, 변이 묽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며, 몸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다. 속설로 율무를 먹으면 정력이 감퇴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한성 태음인들에게는 몸에서 수분이 배출되어 오히려 정력이 좋아지기도 한다.

거꾸로 율무가 잘 안 맞는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 몸에 수분이 거의 없어서 뼈 빠르거나, 물살이 거의 없고 근육질인 사람의 경우에는 율무를 장복하지 말아

야하며, 몸에서 수분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니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소량 음식으로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오랜 기간 차나 약으로 장복을 할 경우에는 내 몸 상태에 맞도록 복용을 하여야 율무가 우리 몸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복부비만 중에서도 아랫배에 복부비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율무차를 복용하면 아랫배가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게 된다. 실제 다이어트 한약에서 율무가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한다.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줄여주고, 허리둘레도 줄여주니 일석이조인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셨던 율무차, 이제는 내 몸의 수분을 잘 배출시켜주어 복부에도, 관절에도, 피부에도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음식이며 약임을 알 수 있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나의 가이드러너!

“나는 시각장애인 스키선수다. 그녀는 나의 가이드러너다. 그녀의 목소리만을 믿고 나는 달린다.” 최근에 나온 어느 통신회사 광고입니다. 그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가대표 시각장애인 스키선수입니다.

‘가이드러너(Guide Runner)’, 종목과 관계없이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돕는 비장애인들을 말합니다. 출발신호에 맞춰 시속 100km의 속도로 무섭게 활강하는 스키선수(양재립, 27세) 앞에는 큰 소리를 외치며 내려가는 또 한명의 선수(고운소리, 21세)가 있습니다. 이 둘은 시각장애인 스키선수와 곁에서 눈이 되어 주는 가이드러너입니다. 이 경기의 특징은 자신의 힘이 아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가이드러너는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아닐까요? 마음과 무릎을 낮추는 것 또한 겸손한 자는 높이시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벧4:13)는 말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냐’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모세에게 ‘너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믿고 따라오라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분은 기꺼이 그들의 가이드러너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내 인생의 가이드러너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까?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요10:4). 우리 주님만이 최고의 가이드러너입니다. 그 분의 음성만을 따라가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마침내 금메달의 골인지점으로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하계 산상집회

일시 : 7월 31(월)~8월 17일(목)
장소 :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 02-533-9191